

전법도생·호국안민 중심 종단으로 우뚝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총화종

도청 등 지적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6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생활 속 육바라밀 실천해야”

총화종 종정 동광스님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강물은 바닷물에 융화되어 더럽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착한 벗을 만나면 스스로 착해지니, 세상에 두루 불법을 전하는 것으로만 중생을 바다로 인도하는 전법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피는 보살행을 펼치며 종단의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고통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 포교의 출발”이라는 스님은 “산에서 홀로 고요히 앉아 깨달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동체대비심을 일으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대한불교총화종 제12대 종정으로 취임, 제13대 종정으로 재추대되어 원융화합 종단을 이끌어온 동광스님(부산 원각사 주석)은 생활불교,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스님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승가의 수행력으로 융화단결, 기강 확립, 자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종단의 교육봉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종단의 수행 기풍을 진작하고 포교원력을 다지는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행과 포교의 두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불교 발전의 기초라는 믿음으로 정진해 온 동광스님은 창종 당시부터 종단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는 한편,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

다. 스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총화종의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틀이 되어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광스님은 “가치 전도, 물질 만능 등 혼란의 시대일수록 포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법이니, 스스로 인의로운 행을 하고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육바라밀의 바른 행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널리 펴야 한다”며 “제 때에 일어나고, 제 때에 욕심을 비우고 적당한 공양을 하는 것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깊이 참구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총화종 종지종풍

- 교조 : 석가모니불
- 주불 : 비로자나불
- 종조 :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
- 종지 : 석가모니불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의 교리를 본래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과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로 한다
- 소의경전 : 화엄경
- 종흥 : 1960년 4월 15일

대한불교총화종 조직

- | | |
|-------------|-------------|
| 원로원장: 아웅 | 문화원장: 도공 |
| 종정: 동광 | 총무원 부원장: 남은 |
| 부종정: 인현, 혜산 | 중앙선관위원장: 동오 |
| 총무원장: 남정 | 총무부장: 현오 |
| 중앙총회의장: 화담 | 기획실장: 행원 |
| 감찰원장: 고담 | 교무부장: 법오 |
| 교육원장: 청해 | 재무부장: 지산 |
| 포교원장: 청담 | 규정부장: 범람 |
| 선원장: 금산 | 사회부장: 대암 |
| 호계원장: 만오 | 조직부장: 도평 |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

www.chonghwajong.org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전화 : (031)592-8891
팩스 : (031)592-8892

“염불·기도정진하면 못이룰것 없어”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정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불자들은 신심을 돈독히 닦아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은 72년 속초 연봉사에서 기도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절을 지으라는 땅을 현몽한 후 13년동안 전국에 헤맨 끝에 발견했다. 대광명전을 비롯해 요사채와 관음전, 범종각 등 사찰로서의 모습을 갖춰오기까지 오랜 불사를 이어오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것은 오로지 부처님 도량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착을

불자들이 지나야 할 자제를 이렇게 말하는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사진)은 “불자들의 신심을 돌고 돌아 바른 신행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불교종단의 승려교육의 중요성을 세삼 강조한다. 출가수행자가 제대로 서야 불자들도 바른 신행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98년 13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11월 14대 총무원장으로 재취임한 남정스님은 종단 규모에 맞는 교육체제와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00여 사암과 1백50여 만명의 신도들을 하나로 묶어 총세를 극대화, 한국불교를 이끄는 화합종단으로 우뚝 서기 위함이다. 종단 원장과 총본산 건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85년부터 총본산 수진사를 일컫는 남정스님

끊어야 한다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수진사에 더욱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남정스님은 “수진사가 종단의 후학들을 길러내는 교육도량인 동시에 사회복지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종단 전체 사찰을 법인으로 묶어 삼보정제가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고 강조했다.

66년 은해사에서 출가한 이후 40여년 동안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온 남정스님은 종단 중흥과 사회 화합이라는 마지막 서원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종단 중흥의지를 다지기 위해 2001년 3월 열린 국운운창 및 영산수륙대제(왼쪽)와 2002년 9월 종단차원으로 가진 일본 후쿠오카 남정원 성지순례(오른쪽).

‘총화종’ 이 걸어온 길

1960년 4월 15일 대한불교 화동회(和同會)를 모태로 1969년 5월 15일 대한불교총화회가 창립됐다. 비구-대처간 분규가 이어지던 당시 분위기에서 총화회의 창립은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같은해 12월 30일 총화회는 당시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로 공식 등록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10년 후인 1979년 10월 대한불교총화종(大韓佛敎總和宗)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동광(東光) 스님을 제12대 종정으로 추대하고, 남정(南正) 스님이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종단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1200여 사찰과 1백50만명을 웃도는 신도수는 총화종이 불교계 중심 종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수진사에 총본산과 현 총무원이 자리를 잡은 1998년 9월 이후 총화종은 불교계의 중심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승려연수와 신도교육을 통해 종단 위계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으로서 전법중생과 호국안민을 위해 종단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화동회→총화회→79년 ‘총화종’으로 전국에 사찰 1200곳, 신도 150만명 상회 보살계 수계식·법계고시 등 올 사업계획



◇수진사는 중앙총무기관이 주재한 사찰로, 총화종 총본산 사격을 갖췄다.

창종 이후 종단을 이끌고 오늘날의 위상을 세우고자 진력해 온 추강스님(백양사), 설호스님(관음사), 금담스님(향정사), 아웅스님(승룡사) 등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총화종은 총본산 수진사 창장과 종찰 건립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 마련된 경남 창원 부지 등을 포함해 종찰로서의 사격과 위엄을 갖춘 도량을 세워 중생 교화와 종단을 대표하는 중심사찰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종단 역량 강화와 한국불교를 이끄는 종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도 종찰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총화종은 종단 교육체제 확립과 신도들의 소양강화, 국제불교 교류 확대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

다. 이를 위해 5월 29일 흥천 연화사에서 전국보살계 수계식을 개최하는 한편, 8월 15일 백두산 성지순례 및 산신기도 봉행, 10월 8일 승려 법계고시 시행,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참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참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와 중무행정 전산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본산 수진사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번지, 천마산 산자락이 넘쳐난 감싸안은 이곳에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修進寺)가 자리하고 있다. 수진사에는 총화종 총무원을 비롯해 교육원, 호계원, 문화원, 포교원 등 중앙총무기관이 주재하고 있고, 신도회,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 사회복지활동이 연중 이어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총본산 수진사는 7천9백여평의 대지에 1985년 대광명전과 요사채 1개동을 시작으로 불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범종각과 관음전이 완공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자락에 위치 총무원·교육원·호계원·포교원등 주재 복지관 연내 착공...납골당·유치원등 건립



◇98년 9월 서울 창신동에 있던 총무원을 남양주 수진사로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됐다. 이에따라 수진사는 총화종 총본산으로서 손색없는 사격을 갖추게 됐다.

대광명전 내부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우측에 산왕단과 신중단, 좌측에는 칠성단과 지장단이 봉안돼 있다. 대광명전을 나와 좌측으로 범종각과 지상 4층 규모의 관음전, 우측으로 약사여래불 입상과 약수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대광명전 뒤편으로 삼성각 건립 불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과 불교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착공할 사회복지관 내에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납골당과 유치원, 유아방, 치매환자 요양원 등을 열어 경기동부지역의 사회복지를 이끄는 요람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총본산 수진사에 주석하고 있는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힘든 여건속에서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건립된 총본산 수진사를 후학들의 수행처인 동시에 사회복지 중심도량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종단 원찰 건립 불사와 함께 총본산 수진사 중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